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박물관 사랑들



2010년 여름 30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수월관음도, 고려 14세기, 비단에 채색, 113.7×55.2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Contents

기획 고려불화	4	찬란하고 섬세한 미를 만나다
	8	달이 물에 비친 듯, 수월관음도
선비들의 문화사랑	13	책을 읽어 좋은 점 네 가지
전시실 산책 I	14	신과 인간, 그들이 사는 이야기
답사기	18	봉화는 은근히 보물이 많다
전시실 산책 II	21	천공을 가르고 구름을 헤치며
회원기고	24	황홀한 색채 속을 유영하다
회원마당	27	들풀처럼 손짓하는 명필 앞에서
	30	청자사자모양 향로
박물관 둘러보기	32	꽃, 봄과 여름 사이
	34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찬란하고 섬세한 미를 만나다

| 글 _ 김정희 _ 원광대학교 교수

1991년 10월, 미국 뉴욕의 한국고미술품 경매에서 고려시대의 水月觀音圖가 내정가의 10배인 176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세로 1미터 남짓한 고려불화가 한국고미술품의 최고 경매가를 갱신하며 고가에 낙찰된 일은 한국 미술, 특히 고려불화의 뛰어난 작품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다. 과연 고려불화는 어떤 그림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고려시대는 불교미술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이며, 불교회화의 황금기였다. 태조 왕건은 918년 고려왕조를 건국하고 그 이듬해 개경에 도읍한 직후, 법왕사, 왕륜사 등 10개 사찰을 창건하였다. 곧이어 대흥사, 광명사, 외제석원·신중원, 안화선원, 광흥사·현성사·미륵사·사천왕사, 대봉은사·불일사가 세워진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으며, 불화가 다수 조성·봉안되었다. 또 호국불교적 성격이 강하여 법회와 의식이 성행하고 각종 도량이 설치됨에 따라 의식용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권문세족들이 가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願堂과 願刹을 건립하는 일이 유행하면서 이곳에 봉안하는 불화도 많이 제작되었다.



01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국초부터 많은 불화가 제작되었지만, 현재는 13세기말~14세기말에 걸쳐 조성된 채색화 160여점, 사경화 70~80여점 등 230~240여점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17점은 유럽과 미국, 13점은 한국,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 전한다. 언뜻 보면 생각 외로 많은 작품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고려왕조 500년 동안 조성되었던 불화를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이 중 고려전기의 것은 1006년 경종의妃이자 목종의 모후인 千秋太后 皇甫氏가 발원, 제작한 <대보적경사경변상도>와 <보협인다라니경관화변상도>(1007년), <어제비장전관화변상도>(11세기) 등 몇 점에 불과하다. 이 불화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대부분 충렬왕~충정왕대인 13~14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불화가 유독 많은 까닭은,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호국과 국가적 안녕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였고, 국왕의 寺院幸行 및 각종 불교행사도 더욱 성행하면서 예배용과 함께 의식용의 불화가 다수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려불화는 주제 면에서 불 때 아미타도,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나한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석가십육나한도, 약사여래도 등이 몇 점 남아있다. 수명장수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정토계 불화인 아미타도와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등이 많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 사회의 불교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던 불안하고 혼란된 사회에서, 살아서는 현세적인 이익을 주고 사후에는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케 해주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신앙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토계

불화가 다수 제작되었으며, 특히 왕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영하는 아미타여래를 그린 아미타내영도가 인기를 끌었다.

고려불화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려불화는 모두 비단바탕에 그려졌다. 이 시대에는 너비가 40~60cm 정도 되는 비단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1310년 충선왕의 寵妃였던 숙창원비 김씨가 발원한 수월관음도(일본 카가미진자 소장)처럼 너비가 2m를 넘는 비단을 특수 제작하여 쓰기도 했다. 안료는 朱와 綠靑, 群靑, 鉛白, 황토, 순금 등 대부분 광물성 안료인 石彩이지만 때로 쪽과 연지 등의 식물성 안료도 사용되었다. 모든 여래의 가사 바탕에는 朱로 전면을 바르고 대의에는 녹색, 치마에는 군청을 칠했다. 흰색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1309년 아미타삼존도(일본 우에스기진자 소장)처럼 중국 송·원대의 영향이 농후한 불화에서는 얼굴과 옷, 지물 등에 백색을 칠하여 밝고 환한 느낌을 주었다. 또 얼굴과 팔, 다리 등 육신부에는 비단의 뒷면에 물감을 칠하여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背彩法으로 그려 은은한 느낌이 나며 안료의 박락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고려불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색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금색은 부처의 얼굴을 비롯하여 윤곽선과 옷 주름, 각종 문양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처럼 금박을 잘라 붙이는 키리가네(截金) 기법이 아니라 순금을 분말로 만들어 아교에 섞어서 칠했다. 이처럼 몇 가지 색만으로 채색했는데도 고려 불화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색을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고려불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구도를 보면, 화면을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본존인 주인공을 크게 강조



하여 그리고, 하단에는 대좌를 중심으로 협시들을 배치하는 이른바 二段構圖를 보여준다. 1307년 魯英이 그린 아미타구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비롯하여 지장시왕도(일본 세이카도분코미술관 소장), 1320년 아미타구존도(일본 마츠오데라 소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 상부에는 본존이 원형 광배 속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고, 본존의 무릎 밑과 화면 하단에 걸쳐 묘사된 협시들은 대각선으로 중앙의 본존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다. 예배도는 엄격하게 2단구도를 지킨 반면, 수월관음도와 아미타내영도, 나한도에서는 인물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였다. 아미타불이 임종시 중생을 극락으로 맞이해 가는 장면을 그린 1286년 아미타내영도(일본 니혼은행 소장)는 염승익이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를 위해 발원한 불화이다.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비틀고 서서 오른팔을 길게 내려뻗고 왼팔은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두 손가락을 맞댄 부처의 모습은 중생을 제도하는 아미타불의 자비로움을 잘 표현하였다. 또한, 慧虛의 작품으로 알려진 관음보살도(일본 센소지 소장)는 관음보살의 풍만한 신체와 찬란한 채색, 필선의 유려함으로 고려불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기에 충분하다.

본존을 비롯한 인물들은 대부분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무늬가 시문된 옷을 걸쳤다. 붉은 바탕의 佛衣에 묘사된 커다란 圓文, 옷깃에 표현된 많은 식물 문양들, 관음보살의 투명한 사라에 시문된 雲鳳文과 龜甲文은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1286년 아미타내영도의 대의에는 금니의 커다란 보상화문이 변화 있는 필선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1323년 徐九方필 수월관음도에는 연잎과 연꽃을 모티프로 한 연당초문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고려 불화 중 가장 화려한 문양이 그려진 1310년 수월관음도는 식물 문양과 함께 투명한 사라에 금니로 운봉문을 그리고,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고려시대 나전칠기에 흔히 보이는 국화문을 그려 넣었다. 문양들은 때로 변잡할 정도로 많이 그려져 복잡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후기로 갈수록 문양은 더욱 화려하고 요란해져 다소 형식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 01 대보적경사경변상도, 1006년, 감지에 금니, 29.1×45.2cm,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 02 아미타내영도, 1286년, 비단에 채색, 203.5×105.1cm, 일본 니혼은행 소장
- 03 지장시왕도, 고려, 비단에 채색, 143.5×55.9cm, 일본 세이카도분코미술관 소장
- 04 관경서분변상도, 고려, 비단에 채색, 150.5cm, 일본 사이후쿠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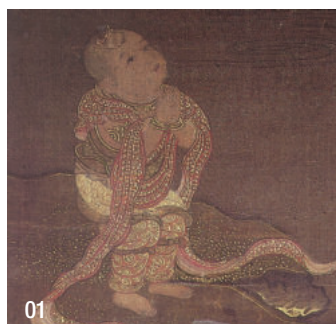
고려불화는 단순히 불화가 아니다. 고려불화 속에는 고려인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궁궐과 사찰 건축, 법구 뿐 아니라 왕과 왕비, 서민, 승려들의 모습까지도 그려져 있어 史料로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 왕과 태자는 遠遊冠을 쓰고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왕비는 높게 올린 머리에 金花로 화려하게 장식한 화관을 쓰고 아름다운 지수를 놓은 옷을 입고 있다(일본 다이온지 소장 관경서분변상도). 이것은 중국사신 徐兢이 <고려도경>(1123년)에 기록한 왕과 왕비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관리들은 幘頭 또는 巾을 쓰고 소매가 넓은 옷에 가죽신을 신거나(일본 다이토쿠지 소장 수월관음도), 둥근 옷깃에 소매가 좁은 상의와 바지를 입었으며(일본 치온인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 승려는 장삼 위에 가사를 걸쳤다(일본 치온인 소장 관경변상도). 또 관경변상도에 표현된 화려한 건물의 모습은 고려시대 건축이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고려만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공포와 난간이 있는 팔작지붕의 중층건물은 雜像과 鷓尾로 장식되었고, 전각 내 단집의 모습은 봉정사 극락전의 단집과도 닮아있다.

화려한 색채와 치밀한 구성으로 불교의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불화는 불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불교미술품이자 예배대상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성을 다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이 많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동 시대 중국인들조차 기교가 정밀하고 세련되었다는 찬사를 보냈다. 섬세한 기법과 화려한 채색, 세밀한 문양 등에서 동아시아 불화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런 점에서 고려불화는 고려시대, 아니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고려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달이 물에 비친 듯, 수월관음도

| 글 _ 정미희



오랜 구도여행을 하던 선재동자가 관세음보살을 만나 묻는다.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기다리는 듯 두 손을 모은 천진난만한 동자의 얼굴은 사뭇 진지해 보인다. 거대한 존재를 그 작은 눈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 관음은 우아하게 앉아 동자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보낸다. 투명한 사라는 머리에서 부터 어깨를 지나 달빛 흐르는 물 위로 하늘거린다. 水月觀音이다.

수월관음도는 보타라가산 연못가 바위 위에 앉아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는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으로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며 여행, 특히 항해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살로 여긴다. 선재동자가 차례로 만난 53명의 善知識 가운데 28번째가 관음이다. 현세의 안녕과 내세의 영화를 위한 염원으로 아미타, 지장보살과 함께 불화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었다.

水月은 물에 비친 달이다. 수월을 보려면 수면이 잠잠해야 한다. 수면 뿐 아니라 마음의 파도까지 다스려야 된다. 오랜 기다림 후, 자신을 바치는 정성으로 붓을 들 때 비로소 화공은 관음보살의 마음이 된다. 巖座 아래 바위 틈에

작은 폭포가 물줄기를 쏟아낸다. 그 줄기는 옆으로 돌아서며 물거품을 만들지만 그뿐이다. 화공의 마음이 투영된 수면은 아무런 동요 없이 고요하다.

徐九方の <수월관음도>는 다른 불화에 비해 보존상태가 좋다. 그는 아름다운 관음의 자태를 위해 신비로운 기암괴석을 그려 넣고 그것을 연결하여 편안한 의자와 멋진 팔걸이를 만들었다. 어쩌면 그렇게 센스 있는 생각을 했는지 놀라운 상상력이다. 돌출되어 있는 괴석은 구름모양으로 위쪽은 청록색, 아래는 金泥로 칠하여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환상적이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바위 표현은 청록산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수월관음도는 주로 대각선구도를 취한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반가좌한 관음은 맞은편 모서리의 동자와 사선으로 이어진다. 오른손은 정병에 꽂혀 있는 버드나무가지처럼 부드럽게 수면으로 향한다. 미끄러질 듯 손등에 걸린 염주를 잡은 손가락은 길고 섬세하다. 수정염주를 펜 실의 붉은 색이 살짝 비취 산뜻해 보인다. 백제의 왕릉에서 나온 목걸이와 닮은 것도 같다. 관음의 눈길이 아래로 흐른다. 아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을 향한 것이리라. 관음보살의 얼굴은 풍만하며 사라의 표현에서도 흰색이 줄어 마치 금니의 선묘로만 그린 것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다. 발이 올려져 있는 연꽃을 반쯤 휘감은 天衣의 끝자락에선 공기의 흐름이 느껴진다. 작은 입은 꼭 다물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래서일까? 한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선재동자는 엄마의 훈육을 받는 아이처럼 긴장한 듯 하다.

지극한 아름다움은 종교를 떠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불화가 주는 감동은 우리를 순수한 세계로 이끈다. 카가미진자 소장 <수월관음도>는 보는 순간 호흡이 잠시 멈춰진다. 높이 420cm, 너비 254cm 그 압도적인 크기에 놀라고 화려한 색감과 섬세함에 탄성이 절로 난다. 화폭 가득한 관음보살의 미소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다. 이것은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최대 규모이다. 일본으로 반출된 후 700년을 갇힌 채 빛을 볼 수 없었다. 몇 년 전 처음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전시 되었을 때, 그 나라 언론은 모나리자에 버금가는 미소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비교로 어찌 불화의 미소를 말할 수 있겠는가? 수월관음도의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다. 고려인의 꿈이 빛어낸 불심 그 자체이다.

이 <수월관음도>에서 관음의 자태는 한눈에 봐도 빼어나다. 기암괴석과 붉고 하얀 산호초가 어우러진 동굴 앞의 관음은, 다른 작품과 달리 그림의 오른쪽 측면으로 앉아 왼쪽



02

01 수월관음도 부분(선재동자), 고려, 비단에 채색, 119×63.5cm, 일본 長樂寺 소장

02 수월관음도, 서구방 필, 1323년, 비단에 채색, 166.5×101.5cm, 일본 센오쿠하쿠코칸 소장



을 향하고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표정을 지어 얼굴이 온화해 보인다. 寶冠에는 붉은 가사를 입은 화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곳을 자세히 보면 금박의 문양이 선명하다. 눈매는 색조화장을 한 듯 깊으며 속눈썹과 얼굴의 잔털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화공의 정교한 손끝을 느끼게 한다. 흐리긴하지만 금선의 圓形頭光과 身光이 관음을 둘러싸고 있다. 아마 그 빛이 맨살인 상반신을 은은하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였으리라. 귀에 감은 寶髮은 양 어깨에 내려와 구불거린다. 목걸이, 팔찌, 영락으로 관음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다. 붉은 치마 위의 상하 대칭인 연화문과 치마 둘레 모란당초문의 색깔은 오래전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고 화려하다.

수월관음도의 사라는 관음을 더욱 신비스럽게 한다. 금니로 시문된 천상의 새는 사라를 뚫고 나올 듯이 역동적이다. 산수를 배경으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화공의 미감으로 절묘하게 표현된 사라는 실제로 고려인이 사용했던 비단이다. 보통 불화는 여러 개를 이어 붙인 비단에 그린다. 그러나 고려불화의 대부분은 통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이 〈수월관음도〉를 그린 거족의 비단은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다. 고려인의 탁월했던 직조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하단의 선재동자는 실제 아동의 크기로 그려져 그림의 규모를 더욱 실감하게 한다. 앞머리를 붉은 리본으로 묶고 합장하는 그 눈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다. 동자의 천의 자락조차 관음을 향하여 움직인다.

慧虛스님이 그린 〈관음보살도〉 속의 관음은 버들가지를 쥐고 있다. 바위 위의 정병에 버들가지를 꽂은 다른 작품과는 사뭇 다르다. 관음을 둘러싼 물방울 모양의 금색 윤곽선은 그것이 광배임을 알아차리게 한다. 광배를 눈여겨보면 버드나무 잎사귀와 흡사하다. 헤허는 왜 광배대신 커다란 버들잎 하나를 그렸을까? 아래로 늘어지는 물가 버드나무의 속성처럼 중생을 향하고 있는 관음의 마음은 아닐는지.

초록 버들잎 속 관음은 여신처럼 우아하게 서 있다. 가름한 얼굴과 섬세한 손, 금빛과 어우러진 투명한 사라를 입은 모습은 또한 성모를 연상시킨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관세음보살은 한 사람의 고통만 해결해주는 것으로 부족하여, 천명의 중생을 위해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졌다고 했던가. 관음의 손에 들려있는 버들가지 잎사귀 하나하나가 어찌면 관음의 화신일지도 모르겠다. 저 아래 동자에게 다가가려는 듯 관음의 발은 살짝 들려있다.



- 03 수월관음도, 1310년, 비단에 채색, 419.5×254.2cm, 일본 카가미진자 소장
- 04 03의 부분(사라에 시문된 봉황문)
- 05 03의 부분(귀갑문, 연화문)



06 관음보살도, 해허, 고려, 비단에 채색, 144×62.6cm, 일본 센소지 소장

觀世音子는,
 觀音大士로세.
 白衣의 청정한 像은,
 마치, 달이 물에 비친 듯하네.
 雙根을 말린 잎은,
 향내가 어디서 나는가를 들으며,
 竹林에 편안히 앉아,
 빈 마음을 서로 의탁했네.
 동자는 무엇을 구하는가,
 무릎을 굽혀 꿇고 절하네.
 만약에 법을 구하는 것일진대,
 법은 또 네게도 있느니라.(후략) -이규보

선재동자는 법을 구하기 위해 떠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월관음도> 속 동자의 눈망울은 너무나 맑고 순수하다. 어린 구도자 옆에 슬쩍 서서 나도 관음의 법을 듣는다.

수월관음도는 고려문화의 결정체이다. 우리 것인데 정작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수월관음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려불화가 외국에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의 혼을 담은 불화가 다른 나라 수장고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울컥 뜨거운 것이 치민다. 고려불화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겨우 30년 남짓 되었으니 무심과 무지가 만들어 낸 안타까운 우리의 현주소다. 도판 속 수려한 관음을 감상하는 내내 돋보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까지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겠지만 가끔은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책을 읽어 좋은 점 네 가지

| 글 _ 이덕무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일이 있다. 일과(日課)로 정해 두고 책을 읽으면 네 가지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식하고 정밀하게 된다거나 고금(古今)에 통달하게 된다거나 뜻을 지키고 재주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유익함이란 무엇인가?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낭랑해져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퍼져 추위를 잊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 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니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기침 앓이를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만약 춥거나 덥지도 않고 배고프거나 배부르지도 않으며, 마음은 더없이 화평하고 몸은 더없이 편안한데다, 등불은 환하고 서책은 가지런하며 책상은 깨끗이 닦여 있다면, 책을 읽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하물며 고원한 뜻과 빼어난 재주를 겸비한 건장한 젊은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의 동지(同志)들이여, 분발하고 분발할지어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지식인을 대표하는 문인.

규장각 초대 검사관을 역임했고 독서를 선비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해 평생 책 읽는 선비로 자처하였다.

저서로는 『靑莊館全書』 등이 있다.



신과 인간, 그들이 사는 이야기

| 글 _ 정혜리 _ 회원

신화는 끝없는 상상력이다.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신화를 창조하고 신의 능력에 의지하기를 원한다. 어린 시절, 나는 그리스 신화를 읽으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올림포스 신전으로 날아가곤 했다. 그곳에는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들이 살고 있었다.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유치한 신들의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그 신들이 3000년의 시공간을 넘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내려왔다.

「그리스의 신과 인간」전을 보러 가며 묘한 흥분과 기대로 설레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잘생긴 조각상에 매료되어 밤늦도록 그들과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깊은 눈, 멋진 근육은 왜 그렇게 표현이 안되던지. 못생긴 소크라테스의 주름마저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다 선의 터치가 살아나는 순간 번개치듯 강렬한 전율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마음속 깊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시절이다.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그들은 영원한 젊음으로 이곳에 왔겠지.



전시의 시작은 긴 창과 번개를 들고 근엄하게 서 있는 신들의 왕, 제우스이다. 그의 작은 몸에서 뿜어 나오는 강한 카리스마에 신들도 오금이 저릴 것만 같다. 이런 제우스도 늘 사고를 쳐서 결혼의 신 헤라를 화나게 한다. 싸늘한 헤라의 눈매에 걸음이 멎는다. 신들도 부부로 산다는 것은 힘든가보다. 마음까지 얼어붙은 헤라에 비해 아프로디테는 긴 망토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한없이 자애롭다. 말쑥장이 남편을 둔 여신과 장난꾸러기 아들을 둔 여신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 악동 에로스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한껏 건방진 포즈를 하고 있다. 여기저기 화살을 쏘아 주위를 당황 시키고 엄마를 곤란하게 하지만 아프로디테에게는 사랑스런 아들이다. 그리스인들은 신을 숭배하면서도 그들과 어깨를 마주하며 같이 호흡하기를 원했다.

그리스는 수많은 폴리스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몸을 단련 시켰다.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공기의 흐름마저 멈추게 한다. 멀리 던지기 위해 원반을 힘껏 움켜잡은 손 마디마디의 힘줄이 파르르 떨린다. 에너지를 축적하여 결정적인 순간 폭발하려고 온몸의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다. 엉덩이와 허벅지도 극도로 수축되었다. 너무 힘을 주어 발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다. 하얀 조각상을 검은 거울 위에 올려놓았는데 흑백의 대비가 근육을 더 돋보이게 해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폴리클레이토스는 ‘머리가 신체의 1/8이 되어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인체다’라는 인체비례론(cannon)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얼굴보다는 완벽한 신체의

- 01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기원전 300~100년, 테라코타, 26×10.5×6.8cm
- 02 헤라, 기원후 30~180년, 대리석, 63×33×36cm
- 03 제우스, 기원후 1세기~2세기, 청동, 23.6×11×10.8cm



비례를 표현하는 데 정신력을 집중했다. ‘작은 듯한 조각미 남’의 얼굴이 무표정하고 똑같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이번 전시의 또다른 즐거움은 많은 도기들이다. 커다란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 시대로 여행을 떠난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트스가 당나귀를 타고 올림포스로 돌아가고 있다. 항아리 몸체에 커다란 눈을 그려 넣어 헤파이트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헤파이트스의 얼굴을 측면만 그렸으나 당나귀는 정면을 보고 있다. 도기 안의 인물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극적인 순간이나 고통을 의미한다. 「헤라클레스와 게리온」의 피 흘리고 쓰러진 목동이나 권투

경기에서 공격당하는 선수들은 정면을 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뱀이 우글거리는 머리와 날카로운 송곳니, 부리부리한 눈의 메두사는 무섭기는 커녕 귀여워서 웃음이 나온다. 2500년간을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눈에 힘이 풀리거나 지칠 만도 한데 아직도 빛을 발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우리 여자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말하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나는 아이를 한번 낳는 것보다 차라리 세 번 전쟁에 나가
방패를 들고 싸우는 편을 택하겠어.

-에우리 피데스의 희곡 「메데이아」, 기원전 431년

기원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단조롭다. 반복적인 일상 안에서도 아기자기한 그녀들만의 생활이 엿보인다. 도기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넘쳐나는 기지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모딜리아니 작품 같은 얼굴에 두팔로 몸을 감싼 채 초연히 앞을 보는 여인상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기원전 3000년경에 발견된 여성상은 과감한 생략 때문인지 현대의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 04 적회식 화장품함 부분, 기원전 470년, 17.5×12cm
- 05 적회식 물항아리, 기원전 490년경, 41.1×39.5×32cm
- 06 여성상, 기원전 2600~2400년경, 대리석, 48.5×12.2×7cm
- 07 희극배우, 기원후 1~2세기, 대리석, 60×27×32cm
- 08 묘비 부조, 기원후 2세기, 대리석, 43×34×4cm

과시하는 아프로디테나 온갖 치장을 한 여인들 속에서 무심함을 가장하고 있다. 큰 얼굴에 굵은 목, 시대를 거스르는 몸매로 살아가려니 당연히 힘들 수 밖에. 나도 그 옆에 같은 자세로 서 본다. 한쪽 발에 살짝 힘을 준 「인체비레론」의 완벽한 입상들은 정형화된 현대의 미인들 같아 나는 자꾸 작아만 진다. 초라함을 감추느라 양팔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이 여인상 앞에서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 갑자기 너무 많은 그리스 유물들이 머리 속에 들어와 혼란스러운 내게 차분히 길을 안내해 준다. 숨을 고르며 방향을 옮기자 다시 세 명의 여신이 파리스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를 물어본다. 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누가 저를 부르셨나요.’ 가면의 얼굴은 웃고 있지만 걸터앉은 몸에서는 피곤함이 배어 나온다. ‘부르지 마세요. 저는 쉬고 싶습니다.’ 가면 속에서 배우의 입이 말하는 듯하다. 화려한 신전을 세우고, 우승자에게 영광과 환호를 보냈던 신의 나라 그리스. 10대에 보았던 그리스는 신과 영웅들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화려함 뒤에 가려있던 작은 존재들의 소소한 일상을 본다. 그들이 진정 위대한 문명을 일으킨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인간은 결국 한참 후으로 돌아간다. 살아서의 영광은 찰나이고,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뼈만 남은 모습에서 생전의 아름다움과 추함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잠시 내려 앉아 머물다 가는 것이다. 아름다움도, 영광도 다 덧없다. 전시실을 나오자 열린 광장을 휘감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리스의 우울한 소식에 신들도 마음이 편치 않나보다. 🐼

06



07



08





01

봉화는 은근히 보물이 많다

| 글 _ 하영남 _ 회원

집 근처에 봉화묵집이라는 음식점이 있다. 소박한 식단에 골목 깊숙이 숨어있어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곳이다. 무얼 시키든 제일 먼저 내오는 것은 동치미이다. 국물이 그야말로 담박하다. 다른 음식도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맛이다. 이 집에 가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묵은 배추김치 때문이다. 김치냉장고가 앓아간, 잘 숙성된 맛이 살아있다. 오래된 단청처럼 김치의 매무새는 단정하고 맛은 그윽하다. 봉화로 답사를 간다고 했을 때 문득 그 집이 생각났다.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비경이 있을 것 같은, 그 집 김치를 떠올리면 조건반사적으로 침이 고이듯, 은근한 기대가 길을 나서게 했다.

전날 밤 예외 없이 잠을 설쳤다. 버스를 타고 세상모르고 훑아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현란한 초록에 눈이 부셨다. 태백의 품으로 접어들었나보다. 산이 깊어서인지 제법 물이 오른 녹색부터 막 움트는 연두까지, 황홀한 스펙트럼이 펼쳐져있다. 그냥 녹색이라 칭하지만 느낌은 면면이 정말 다르다. 저 어여쁜 것들을 뭉뚱그려 어찌 하나에 다 가두겠는가. 낭창하게 흐르는 수양버들 잎, 털이 보송보송한 솔 숲, 보석처럼 반짝이는 감나무의 새 잎, 연보라 꽃을 달고 일렁이는 등나무, 꽃보다 잎의 향연이 더 화려하고 풍성하다. 싱그러운 바람이 가슴으로 마구 들어온다. 이즈음 떠나는 답사는 전적으로 내 몸을 초록을 충전하러 가는 것이다.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에는 두기의 3층 석탑이 있다. 동탑과 서탑이 동일한 쌍탑 형식으로 상하 이중 기단 위에 탑신을 엮은 신라식 일반 석탑이다. 성실한 석공이 기교를 부리지 않고 만든 듯하다. 5미터 정도의 탑이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둘러싸여 있을 뿐, 절터도 넓지 않아 폐사지 특유의 비장미도 없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좀 평범해 보이는 탑이다. 그런데 보물 52호란다. 1963년 보수공사 때 두 탑 속에서 수많은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녹유리 사리병과 납석제 사리호, 그리고 다라니경이 든 토제 소탑이 99기나 들어있었다. 그 탑이 영원하기를 비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정성이 탑을 보물로 만들지 않았을까? 9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탑으로 추정되고, 신라 고찰인 각화사의 옛 절터로 알려진 곳이란단다. 지금은 춘양중고교에 대부분의 절터를 내주고 소나무 몇 그루와 흩어진 돌들이 폐사지임을 일깨운다. 단풍나무에 기댄 작은 불상 하나가 눈에 뜨인다. 몸은 옛 것인 듯한데 두상은 새로 붙인 것 같다. 무심하기로는 불상이나 방치한 사람들이나 매한가지이다.

문수산 능선에 위치한 축서사로 향했다. 신라시대 의상이 창건한 오래된 꽤 큰 절이다. 가람의 배치며, 산으로 에워싸인 빼어난 경관이 이웃한 부석사와 많이 닮았다. 몸은 절을 오르면서도 시선은 등 뒤에 펼쳐질 화려한 풍광이 궁금해서 자꾸 뒤돌아보게 하여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다. 그래서인지 석불좌상이 얹은 보광전의 천정과 마룻바닥, 앞마당의 석등만 기억에 남아있다. 석불은 근래에 흰색으로 개칠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컸다. 물결 모양의 목조 광배며 천개 장식이 있어 그나마 생동감을 주는 듯하다. 긴 수염을 늘어뜨린 용은 동그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고 천정의 작은 틀 속에는 또다른 별천지가 숨어있었다. 연꽃과 봉황, 학을 탄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있는 모습 등, 축서사가 참선도량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국보 201호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은 세월의 풍화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마모되어 있었다. 암벽을 파서 감실형 석실을 만들고 원각에 가까운 불좌상을 고부조로 새긴 것이라는데, 미세한 표정은 읽을 수가 없다. 광배의 화불들도 거의 흔적만 남아있다. 들어올린 오른손은 잘려나가고 큼직한 왼손만 무릎 위에 펼쳐져있다. 그래서 북지리 마애불은 측면에서 보아야 그 품이 느껴진다. 약간 어깨를 움츠린 자세며 손을 내민 형상이 누군가를 감싸안은 듯 동그스름하다. 얼마나 영검스러웠는지 원통전 뒤편의 암벽에도 작은 불좌상 여러 구와 탑을 조각한 흔적이 있다.

여행의 묘미는 역시 예기치 않은 만남에 있다. 조선 중종 때 문신인 冲齋 權穰의 유적지에서 뜻밖의 행운을 누렸다. 靑巖亭은 비경을 숨겨놓은 정원답게 들어서는 문도 작고 짝작하다. 거북모양의 바위 둘레를 물로 채워 연못 속에 세운 정자인데 아름답리 고목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眉



02



03

叟 許穆의 靑巖水石이라는 현판을 비롯해 청암정의 경치를 칭송한 이퇴계의 시도 전해진다. 또한 정자 속에 방이 있는 특이한 구조로도 주목을 받는다. 좁은 돌다리로 연결된 곳에 충재가 책을 읽고 글을 쓴 작은 집 한 채가 있다. 어찌나 깔끔하고 담박한지, 군더더기 없는 무문의 백자 같은 모습이다. 그가 기록한 충재일기와 近思錄 등은 보물로 지정되어 충재선생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지방의 사설 박물관으로는 드물게 많은 보물을 소장한 것도 놀라웠지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유물을 설명하는 후손의 모습도 보기 좋았다.

봉화는 은근히 보물이 많은 곳이다. 오지여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어찌면 그래서 쉽게 다른 곳으로 반출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었을 수도 있다. 소나무 중에서 최고라는 춘양목도 이곳에서 자란 소나무를 지칭한다. 송이며 한과도 유명하다. 근래 메마른 눈물샘을 자극한 ‘워낭소리’라는 영화도 이곳이 배경이다. 향수병이 심해져서 허기를 느낄 때 꺼내 먹는 묵은지처럼 오래된 것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

- 01 축서사 보광전 천정벽화
- 02 봉화 서동리 삼층석탑
- 03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天空을 가르고 구름을 헤치며

-고구려의 山水와 四神展을 보고

| 글 _ 유건집 _ 회원

태초부터 인간은 맹수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이 필요했다. 안전한 곳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옷을 입고, 무기를 만들어 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정신적 안정을 위해 神明을 가까이 두어 보호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만다라에도 四方佛이 배치되고, 四天王, 仁王, 八部神衆, 가루라, 금시조, 용 등이 동원되었다. 집안에도 구석구석에 신들을 모시고 금줄을 친다든가, 마을마다 솟대나 천하대장군을 세우고 성황당을 두어 災厄을 막았다. 그러니 당연히 亡者의 幽宅에도 護身物이 필요했고, 護身獸나 사신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내 기억에 각인되어있는 강서대묘 고분벽화의 영상을 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실을 다시 찾았다. 眞坡里 1호 벽화였다. 7세기

전반 제작으로 추정되는 것이니 고구려 고분벽화의 후기에 속하여 절정기라 할 만하다.

이 사신도는 飛翔을 염원하는 고구려인의 無限意志가 그림으로 표출된 것이다. 天空을 가르고 구름을 헤치며 나는 神物들은 바로 말을 몰고 대지를 누비던 그 민족의 尙武精神이다. 그래서 묘안의 다른 부분에 그려진 당초문이나 구름 하나를 묘사하는 선까지 天衣자락처럼 힘차고 유연하다. 사지가 길고 관절이 발달한 근육질의 몸매이다. 목부터 머리까지 S자형으로 치켜든 자세이고, 온몸에 뽀얀 털은 갈기처럼 힘차고 굽이치게 그렸다. 그래서 발산하는 힘과 속도감은 과히 최고의 경지이다.





이들은 지상에만 안주하는 짐승이 아닌 천국을 드나드는 靈物이다. 뒷다리는 대지를 박차고 앞다리는 높이 뻗어 하늘을 끌어당기며 이륙하고 있다. 긴 깃을 바람에 나부끼며 하늘에서 사뿐히 내려앉는 것은 성덕대왕신종의 飛天 같은 자세이다. 선과 색이 강렬하고 구도가 빈틈없다는 점이 고구려 벽화의 특징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계절과 方位, 陰陽과 星宿(성수)까지 고려한 의미심장한 배치구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파리 1호의 사신도는 미술적 기법이 완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도에 여백을 두지 않고 운문과 연꽃 등이 가득하여 예술적 감각이 살아있다. 이는 아마 麥積山石窟에 남은 六朝末期의 영향인 듯하다. 진파리 1호나 강서대묘는 시기가 비슷한데도, 진파리 것이 六朝 末에서 隋·唐에 걸치는 힘과 색의 특징을 더 많이 받았다. 이 연꽃은 이미 6세기부터 등장했으니, 불교의 영향이라 생각한다.

靑龍圖는 청룡이 왼쪽을 향해 기를 토하며 꼬리를 치켜 세우고 내닫는 가운데 연꽃과 寶華華가 忍冬잎을 달고 구름 속을 나부낀다. 위쪽으로 갈수록 구름이 더 크고 가득한데, 오른쪽 상단에 보기도문 봉황새 하나가 날개를 펼치고 긴 꼬리로 구름을 타고 같은 방향으로 날고 있다. 이는 사

신총에서 선인이 봉황을 타고 나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청룡의 머리에는 雙角이 높이 솟았고, 혀를 길게 뽑아 기를 뽑는다. 전신에 蛇紋이 뚜렷하고 아래쪽은 색이 열으며, 그 아래에도 구름 속이다. 금방이라도 벼락을 내리치며 천지를 뒤흔들 것 같다. 이런 기세는 강서대묘의 청룡도가 좀 더 강렬하다. 강서대묘의 청룡은 胴體가 튼실하고 붉은 색이 짙으며 배경에 그림이 없기에 그 효과가 더 강조된다.

白虎圖도 강서대묘 현실 서벽의 것과 반대방향이다. 이들은 같은 그림을 방향만 돌려놓은 듯 유사하다. 등의 虎皮斑과 다리의 뻗음, 치켜 올린 꼬리의 모양까지 비슷하다. 다만 진파리의 것은 휘감는 털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얼굴의 묘사가 표범에 가까운 것이 다를 뿐이다. 당장 잡아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咆哮하며 달린다. 바로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배경은 청룡도와 비슷하며 봉황은 없다.

玄武圖는 음양이 어우러져 神氣가 용트림치는 힘을 잘 나타낸다. 이를 거북과 이무기로 따로 보기도 하나, 異身同體의 神物로 묘사되기도 한다. 암수가 사랑의 힘으로 화염을 토해 정기를 모으는 형상으로, 남쪽의 주작이 雌雄으로 배치되는 데 대한 대칭적인 의미도 있다. 두 신물은 몸을 반대 방향으로 세웠으나 머리는 앞의 것들과 같은 방향으로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이무기의 몸길이가 좀 짧고 튼실하며, 앞뒤로 큰 나무를 세웠는데 이는 梅山里나 角抵塚의 나무기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현무도하면 쌍영총이 떠오른다. 서로 용트림하는 모양이 과장되기는 해도 기세가 당당하고, 배경의 雲紋 動線이 활달하다. 반면 강서대묘의 것은 배경에 그림 없이 圓을 포개 구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03



04

- 01 진파리 1호 고분벽화 백호
- 02 강서대묘 고분벽화 백호
- 03 진파리 1호 고분벽화 주작
- 04 강서대묘 고분벽화 주작

朱雀圖는 鷄冠을 이고 있는 수컷이 點紋을 몸에 두른 암컷과 마주보며 이제 막 하강을 끝낸 자세로 서 있다. 긴 꼬리의 깃털이 풍운을 일으키며 끝이 머리 위쪽까지 나부끼게 하여 힘이 실려 있다. 강서대묘의 것은 입에 연봉오리를 물고 있는데, 여기선 화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날개를 활짝 펴고, 목뒤의 털을 바짝 세운 것은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으려는 긴장감의 발로이리라. 배경에 연화는 그리지 않았다.

전시실을 나오니 朴彭年이 〈夢遊桃源圖〉를 보고 “언어로서 형용하여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非言語形容之所及也]”라고 한 말이 실감났다. 저 멀리서 꿈을 실은 선조들의 말발굽 소리가 쟁쟁 들리는 듯 했다. 그들은 선계에서 이 신물들을 물고 하늘을 날고 풍운을 일으키며 다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토는 분단되었고 서로 싸우며 다른 나라의 눈치나 보는 후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 조상들의 幽宅마저 남의 땅이 되어 파헤쳐 지니 숙연해진다. 머리 들어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다. 연꽃이 구름 속에서 흐르고, 백호를 탄 고구려인들이 만주벌을 달리는 듯 날아가고 있었다. 🐉

[添記]

관람 중에 “이것 모두 가짜래”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전시된 벽화들이 模寫本이라는 말을 ‘가짜’로 표현한 것이다. ‘가짜’는 僞作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 제작하는, 떳떳하지 못한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模寫本과는 구분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사본은 ‘移模本’이라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역사적인 자료로 보존하기 위해서나, 그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 여럿이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을 때는 부득이 이모할 수 밖에 없다. 인간생활도 시작은 모방에서 출발한다. 이는 모사본을 만드는 이가 전문적인 경지에 이른 예술가들이기 때문이다. 원작을 보고 자기 나름의 예술성을 더하여 다른 작품을 탄생시킨다.

좋은 예로 조선 초에 申叔舟의 동생 申末舟가 그린 〈十老圖上稷圖卷〉가 있다. 이 그림은 후대의 자손인 申景濬의 부탁으로 檀園에 의해서 〈十老圖像帖〉이라는 이름으로 移模되었다. 지금 두 그림이 다 전하는데, 그 가치의 輕重을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번 출품된 벽화들은 그 역사적 기록의 보존 측면에서 원 그림과 같게 그린 대단히 의미 있는 작품들이니, 가벼이 僞作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01

황홀한 색채 속을 유명하다

- 필립스 컬렉션

| 글 _ 조 애 경 _ 회원

필립스 컬렉션을 찾았을 때는 아직 입장시간 전이었다. 미술관은 워싱턴 D.C.의 각국 대사관들이 모여 있어 일명 '외교의 거리'로 불리는 Dupon Circle에 위치해 있다. 거리는 조용했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건물들이 줄이어 서있다. 조지아 오키프의 특별전을 알리는 작은 현수막이 없었더라면 미술관이라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지도 모르겠다. 기업가 던컨 필립스의 저택을 개조한 미술관이라 화려한 내부를 상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다. 하얀 벽면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작품들이 걸려 있어 차분히 감상하기에 적합했다.

르노와르의 <선상 위에서의 점심>과 마주하고 섰다. 햇살 좋은 날, 센 강변 선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은 르노와르와 그의 친구들이다. 어깨를 감싸안고 혹은 얼굴을 맞대며 사랑의 눈길과 미소를 나누는 이들은

한마음으로 어우러졌다. 르노와르의 그림은 늘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가온다. 그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다. 어느새 그림 안에 들어가 함께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 같은 주부가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집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다. 떠나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무어 그리 많은지, 거기에 길고 긴 비행시간까지 귀찮아 다 그만 두고 싶었다. 지치고 짜증난 나를 이 그림은 미술관 밖 벚꽃처럼 활짝 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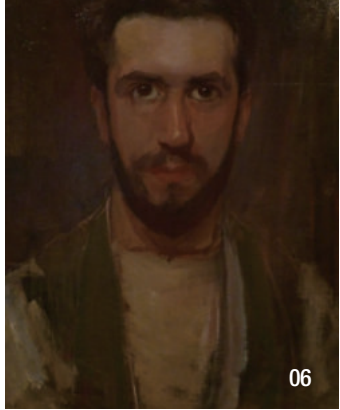
세잔, 고흐, 시슬리, 보나르, 뒤피 등등 대가의 그림들을 내 안에, 그리고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들뜬 나를 차분하게 해주려 했는지 발길이 '마크 로스코의 방'으로 향했다. 입구 안내원은 입장객의 수를 8명씩으로 제한했는데, 얼핏 들여다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방 사면에 직사각의 커다란 작품이 하나씩 걸려 있고, 가운데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다. 이 방은 로스코가 원하는 대로 꾸며진 것이라 한다. 작가는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어떠한 것도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로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했던 것이다. 그는 작품에 젓소나 바탕색을 사용하지 않아, 캔버스에 색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사각형의 경계도 불분명하게 처리했다. 간결한 구도와 강렬한 색채로 표현된 그의 작품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 보는 듯하다. 벤치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다스려 본다. 나의 시각과 마음에 따라 그림은 달라진다. 붉은 대지와 푸른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으로, 때론 타오르는 노란 촛불로, 검푸른 바다로 그림은 변해갔다. 황홀한 색채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나니 지난 겨울부터 몹시도 힘들었던 몸이 홀가분해지는 듯하다. 이제야 그의 제안이 왜 필요했는지 알 것 같다. 추상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시간이었다.

필립스 컬렉션에서는 벽난로가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이곳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었던 벽난로는 또 하나의 인테리어 도구로써 디자인이 다양하다. 다른 미술관이 가구들을 진열품으로만 보여주는 것과 달리,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앉아 쉴 수 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예전의 그들이 양 그림을 느긋하게 바라보았다

다른 방에서 세잔의 자화상과 마주쳤다. 순간 가슴이 '헉'하고 막힐 듯 했



- 01 르노와르, <선상 위에서의 점심>, 1880 ~ 1881
- 02 필립스 컬렉션 전경
- 03 마크 로스코의 방, 필립스 컬렉션
- 04 필립스 컬렉션 내부



05 세잔, 〈자화상〉, 1878 ~ 1880

06 몬드리안, 〈자화상〉

07 조지아 오키프, 〈Pattern of leaves〉, 1923

다. 옆으로 돌아앉아 예리하게 앞을 주시하고 있는 그의 눈길은 매섭다. 마치 나의 감상 태도를 지적이나 하듯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달고 보다 진지한 태도로 그림을 바라본다. 그림도 이렇게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니, 그는 역시 대가임에 틀림없다. 또 한명의 그림 속 남자와 만났다.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커다란 눈망울이 나를 쳐다본다. 첫인상이 무척이나 감성적이며 소심해 보이는 그는 몬드리안이다. 설령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 해도,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그의 유명한 추상작품들과 연결이 잘 안된다. 그러나 한동안 바라보고 있으니 그의 반듯한 이마에서, 선해 보이는 눈망울에서조차 어떤 확고한 소신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어느새 그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화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미국 최초의 현대미술관'으로 불리는 미술관답게 이곳은 인상주의 미술에서부터 브라크, 피카소, 클레, 오키프 등 유럽과 미국의 근현대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필립스는 당대 유명 화가 뿐 아니라 무명 화가의 재능도 알아보았다. 조지아 오키프도 그가 발굴해 낸 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 '조지아 오키프 추상미술'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오키프의 남편이자 미국 근대사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찍은 그녀의 모습과 꽃·동물뼈·풍경 등을 그린 오키프의 작품에서 그녀의 인생 여정이 엿보인다.

특히 그녀의 부분누드 사진은 묘한 느낌이 든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해서 담은 엉덩이, 배, 가슴 등을 보는 순간 그녀가 그린 꽃그림들과 오버랩 된다. 性を 자극적인 의미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켜 외설적이지 않고 농익은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이곳은 던킨 필립스의 아픔에서 출발했다. 부모와 형제를 연이어 잃은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그림에 애정을 쏟았다. 예술가 마조리 액커와 결혼한 후 미술에 대한 안목이 한층 높아지고, 깊은 애정으로 소장품을 늘려갔다. 마침내 자신의 저택을 미술관으로 꾸며, 컬렉션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예술품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누리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닌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결실은 나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진한 감동을 한아름 안겨주었다. 🐼

들풀처럼 손짓하는 명필 앞에서

| 글 _ 이종열 _ 회원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있는 미술관 서예실을 찾았다. 거기에는 우리 서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중국과 한국의 서예 역사를 비교한 게시판이 있었다. 우리 서예는 <광개토대왕릉비>, 신라의 金生, 고려의 坦然으로 이어져 조선 중기이후 石峯 韓濩와 圓嶠 李匡師, 秋史 金正喜가 진취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蠶頭馬蹄나 永字八法이란 말을 귀동냥으로 들었을 뿐 서예의 진수를 판별할 줄 모르는 書盲이다. “한일 자(一)를 쓸 때 첫 머리가 누에머리처럼 하늘로 치우치고 마무리는 말굽이 살짝 굽었다 땅을 딛는 것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한일자만 죽어라 써라. 그것만 잘 쓰면 붓글씨는 저절로 文理가 트인다.”고 하던 선고의 말씀이 생각난다.

원교의 篆書에 눈이 머물렀다. 떨리는 고전체로 쓴 이 글씨는 杜甫의 <동정호를 지나며(過洞庭湖)>로 짜임과 備數가 경쾌한 율동미를 보여준다. 균형 잡힌 글자 하나하나가 알맞게 살찐 벌레가 살아서 기어가는 것 같다. 또 다른 원교의 작품을 찾아보니 行書로 쓴 소동파의 칠언시 <續麗人行>이 있었다. 시원시원하게 붓을 휘두르고, 시적 운치를 살려 감각미를 높였다. ‘조선적인 글씨를 이루고자했던 원교가 왕희지 서풍을 바탕으로 자신의 빠른 붓놀림과 힘찬 필치로 흥취를 이루었다’는 설명이다.

서예실 다른 벽에는 白下 尹淳의 글씨와 추사의 작품도 있었다. 원교는 恭齋 尹斗緒를 거쳐, 백하에게 전수된 東國眞體를 완성한 사람이다. 백하는 부친 李眞儉과 친구였기에 원교는 자연스레 그의 문하가 되었다. 반면 추사는 조형미가 뛰

謹 <small>謹</small>	龍 <small>龍</small>	鯨 <small>鯨</small>
隄 <small>隄</small>	堆 <small>堆</small>	室 <small>室</small>
盤 <small>盤</small>	隱 <small>隱</small>	圍 <small>圍</small>
古 <small>古</small>	白 <small>白</small>	青 <small>青</small>
木 <small>木</small>	沙 <small>沙</small>	草 <small>草</small>

01

婿
 然
 陽
 旅
 卜
 蔡

睡
 苦
 教
 回
 首
 却

有
 志
 東
 風
 初
 破

02

어난 추사체를 완성한 사람이다. 원교의 조부는 호조참판, 부친은 대사헌을 지낸 소론의 명문이었으나 그가 스무 살이 되던 1724년에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정권을 잡자 역적으로 몰렸다. 아버지는 강진으로 유배되었다가 병사했고 과거조차 응시할 수 없었던 그는 학문에 몰입했다. 30대에 魏晉의 필법을 수용하고, 40대에 고대의 전서, 隸書를 터득했다. 한국사에서 18세기는 민족의 자각이 싹트던 시기였다. 그림에서 謙齋 鄭澈이 東國眞景 화풍을 전개함과 발맞춰 서예에는 동국진체가 정립된 때였다. 예컨대 겸제가 그린 금강산 팔경과 소상팔경에 원교가 화제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원교의 고난은 끝이 없었다. 나주벽서사건(1755년)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자 부인은 목을 매어 자결한다. 8년 뒤 다시 진도로 이배되고 또 다시 절해고도인 완도 신지도로 이배되었다. 유배생활 23년을 오로지 자신과 싸우며 우리 고유서체를 완성한 원교는 1777년 8월에 신지도에서 73세로 생을 마쳤다.

원교가 죽은 지 9년 뒤에 태어난 추사는 “옛 禪伯이 이른바 「지붕 밖에 있는 푸른 하늘을 다시 본다」고 했는데, 동쪽 사람들이 원교의 필에 묶여 王虛舟 같은 거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붓을 일컫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청나라에 자주 드나들었던 추사는 거기서 견문한 서예이론으로 원교를 폄훼한 것이다. 두루산 대흥사에서 원교와 추사의 글씨를 함께 음미했던 추억이 생각난다. 귀양에서 풀려 대흥사에 들린 추사는 초의 선사에게 지난날 자기가 떼어버린 원교의 대웅전 현판을 다시 걸도록 주문했다. “내가 쓴 ‘无量壽閣’ 현판하고, 원교의

‘大雄寶殿’이 나란히 있어야 후세 사람이 비교하며 품평을 할 것 아니겠소?”라며……. 추사체를 완성했던 대가의 자신감이었을까, 아니면 귀양살이 9년에 법도를 넘어선 개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체득했던 것이었을까.

나도 유년시절 천자문을 배우며 붓을 잡아본 적이 있다. 선친께서는 내가 쓴 입춘방을 붙여두고 못내 자랑스러워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서 내 글씨는 악필로 변했고, 인성과 품격을 마음에 담은 운필의 요령조차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다. 내 아이들의 글을 보면 그건 나보다 훨씬 더하다. ‘글’은 있되 ‘씨’가 없으며, 쓰는 있으나 藝는 찾아볼 수 없다. 학교에 서예 과목이 없어진 탓도 있으리라. 어느 시대에나 권력은 부침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역사의 이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일생을 역경 속에 살면서 고고한 선비정신을 놓지 않았던 원교의 동국진체가 청출어람인 추사에 묻혀버린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우리 서예가 맥을 잇지 못하고 기능예술의 한 분야로 전락된 오늘의 현실을 또한 아쉬워한다. 서예실의 으스스한 조명아래 들플처럼 싱싱하게 살아있는 원교의 명필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다. 🐼

- 01 이광사, <동정호를 지나며>, 전서, 조선 18세기
- 02 이광사, <續麗人行>, 행서, 조선 1737년
- 03 김정희, 대흥사 '무량수각' 현판
- 04 이광사, 대흥사 '대웅보전' 현판



03



04



청자사자모양향로(국보 제 60호), 고려 12세기, 높이 21.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사자모양향로

| 글 _ 정금주 _ 회원

오래전에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다. 그때에는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사 오기 전이어서 경복궁 안에 있었다. 당시 박물관 순례에 재미를 붙였던 나는 경희루 연못의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박물관은 가기 싫다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에게 말했다. '박물관에는 보물이 잔뜩 있는 곳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보물 하나씩만 짚해두고 얼른 나오자'고. 그때 나는 '청자상감연꽃당초무늬함'을, 아들은 '청자사자모양향로'를 짚었다. 지금 박물관 전시실에 아들 것은 국보 60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조명을 받으면서 한가운데 당당하게 전시되어있건만 내 것은 없었다. 아마도 박물관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 후일을 기약하고 있겠지.

강의가 있는 날에는 도자기실에 들어서 아들의 보물이 잘 있나 둘러 보곤 한다.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박물관이 제일 재미없는 곳이라고 뼈뼉하게 말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매번 자기 보물이 잘 있는지 꼭꼭 확인을 하는 걸 보면 본마음은 그렇지 않은가보다.

‘청자사자모양향로’는 고려청자의 절정기인 12세경에 제작된 것이다. 향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 대체 이 향로는 누가 만들어서 어디에 있다가 국보 60호라는 이름표까지 달고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불교가 국교인 고려에는 전국에 사찰이 많았을 것이고 제법 큰 사찰에는 비색이 은은한 청자 향로도 썼음직하다. 그런데 왜 뚜껑을 사자모양으로 만들었지? 향로가 만들어진 시기로 볼 때 고려의 무신 정권과 맞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는 어느 힘 있는 무인의 사랑방을 더욱 위엄 있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이고 사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이 향로는 무인의 사랑방보다는 어느 정갈한 사찰의 법당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더 어울릴 듯싶다. 뚜껑 위에 장식된 사자를 앞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오히려 사자보다는 강아지 쪽이 더 가깝다. 동그란 눈동자가 선량한 눈매에 코는 손오공의 저팔계를 닮아있다. 하지만 벌어진 입사이로 뼈죽 나온 네 개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 한쪽 발톱으로 보주를 짚고 있는 모습은 위엄과 자비심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부처의 모습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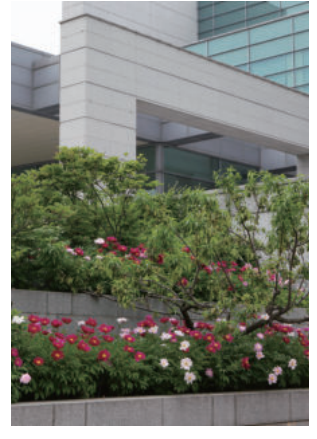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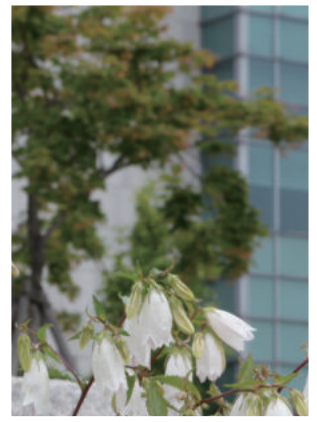
향로는 높이가 21cm 정도로 향을 피우는 몸체부분과 사자 모양의 뚜껑으로 구성된다. 몸체는 3개의 다리가 안정감 있게 떠받치고 있고 각각 동물의 머리모양이 새겨져 있

다. 뚜껑에 있는 사자는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렇다고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빛깔은 유약과 태토를 정선하고 굽는 기술이 최고로 발달하였을 때 만들어서인지 정말 세련되었다. 고려의 비색은 지금의 기술로도 재현이 어렵다니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사자의 벌어진 입으로 연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향로가 관상용이 아닌 생활용품이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청자사자모양향로’와 같은 상형청자는 물레작업이 기본인 종래의 제작 방식과는 달리 고도로 숙련된 손놀림과 틀 작업의 결정체라고 한다. 그래서 못 만드는 모양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표현방식도 조형감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점이 생활용품이라는 기능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을 어우러지게 해, 쓰는 기쁨과 보는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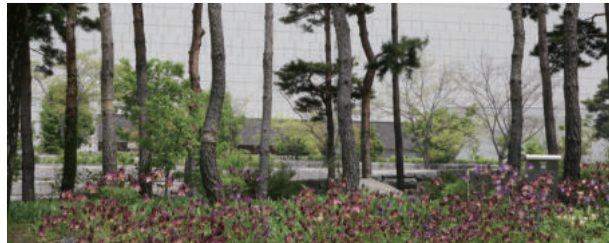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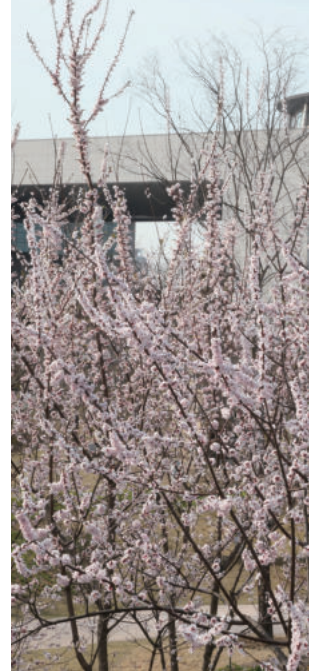
비단 향로뿐만이 아니라 도자기실에 전시된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들의 손때가 묻어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도자기마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을까? 향로를 앞에 놓고 기도했을 사람들, 정성스럽게 닦았을 사람들, 향로는 지금도 그들의 염원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한건 그들 모두가 이 향로를 귀하게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이 향로가 보물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





꽃을 처음으로 꽃같이 보는
 이 눈부신 한나절
 日曆은 어찌면 이때부터 시작되느니라.

- 박재삼의 <모란송가> 中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2010년도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논문 및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학술상은 2009년도에 발표한 국립박물관 직원의 연구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이번 학술상에는 총 20여편의 논문이 응모되었고 관련학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수상논문 및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학술상은 천마상 1편, 금관상 2편, 은관상 2편을 선정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천마상 수상논문은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수상논문은 금관상이 3편, 은관상이 2편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금관상

국보 제 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 - 박학수 (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등준시무과도상첩'의 공신도상적 성격 - 장진아 (중앙박물관 역사부)

예(禮)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 박준호 (청주박물관)

은관상

신라 마립간시기에 이입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문물 - 함순섭 (중앙박물관 전시팀)

봉안 공간과 의례(儀禮)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 - 정명희 (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심사위원 : 이선복(서울대학교), 이청규(영남대학교), 김리나(홍익대학교), 박정혜(한국학중앙연구원), 노중국(계명대학교), 김문식(단국대학교), 이오희(한국전통문화학교), 박지선(용인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金正泰
理 事 | 崔光植 金寧慈 金信韓 朴仙卿
成弼鎬 申聖秀 申硯均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鄭明勳 池健吉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하나금융지주 金正泰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珉 김&장법률사무소
玄明官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權俊一·具在善 Actium 부회장
南秀淨 (주)센앳푸드 대표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변호사
胡鍾一 호성홍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慎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朴海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許榕秀 (주)GS 상무
金宗學 서양화가
都炯泰 갤러리 현대 대표
한국도로공사 柳徹浩
李宇鉉 OCI 부사장
玄智皓 (주)화승 부회장
金芝延 컨셉바이동훈 대표
金南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洪政旭 M&M(주) 사장
李明姬 국회의원
金信韓 경운박물관장
金寧慈 대성산업 전무
金正宙 (재)에을 이사장
金性完 넥스홀딩스 대표
梁汰會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尹在倫 (주)비상교육
丁恩美 서울대학교 교수
(주)로대학편입사 대표이사
趙顯相 효성그룹 전무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洪錫肇 보광웨미리마트 회장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洪誠杓 코스테크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金承謙 (주)서릉 대표
朴世昌 금호아시아나 상무
崔杜準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李海珍 NHN(주) 이사회위원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庚圓 광제사 주지

洋翹團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薛允碩 대한전선 부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朴殷寬 (주)시문드 회장
金載烈 제일모직 전무
李敎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仁順 한국 고미술 자기연구소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朴禎原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무
朴知原 두산중공업 사장
曹在顯 (주)연극열전 이사
曹榮美 (주)KPE 전무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부사장
Joseph Bae KKR Asia Managing partner
具本商 LIG 넥스원 대표
朴善正 GLMI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전무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이사

책을 만들면서..

하양, 노랑, 분홍, 빨강...
꽃순이 마음이 다가오는 오월.
다시 느끼는 꽃마음! (水)

모두 건강하시기를.
맛난 것 먹고, 수다 떨면서
책 만들 수 있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놀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河)

피면 지고
생기면 사그라지는 것을
깨닫지만
또 다시 잊고마는... (愛)

매번 하는 일인데도
늘 실수가 생긴다.
편집은 정말 어렵다~ (리)

돋보기는 신통하다.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
신비한 관음의 미소도, 해맑은 동자의 표정도.
바람을 타고 산호가 춤을 춘다.
보물찾기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오아~ 목이야!! (정)

선배들의 숨씨에
방점을 찍으려니 간지럽네요
더 분발 하겠습니다. 아자!!! (藝)

몽실 몽실한
여름이었으면. (延)

**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0년 6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종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서승연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